

노송니우스박물관

집 집
House Zip
Zip 마다...



2019 -2020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노송니우스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도시재생사업단 인디 기획 :  시티아트연구소



선미촌 2.0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김 승 수 전주시장

노송동에 올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노송동은 성매매집결지라는 불편하고도 아픈 역사를 오랫동안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송동은 '천사마을'이란 별칭이 있을 만큼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익명의 기부자인 '얼굴 없는 천사'는 20년 동안 6억 6천여만 원을 기부하여 4,800여 세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스토리를 지닌 동네는 없습니다. 아픈 과거도 있지만 따뜻한 미담과 공동체가 살아있는 노송동에 '노송닉우스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층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2층은 예술가들과 시민, 학생, 어린이들이 참여한 갤러리로 조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업소였던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선미촌의 변화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매입해 문화예술로 재생하고, 여기서 일하던 여성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두 축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성인권단체와 문화예술가들이 큰 힘을 보태주었고 그 덕분에 '시티가든(기억의 공간 및 인권의 공간)', 문화예술복합공간, 업사이클링센터 '다시 봄',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책방 '물결서사', 성평등과 인권감수성 향상의 거점공간 '성평등 전주' 등 새롭고 혁신적인 공간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어두웠던 공간이 시민의 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미촌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을 받았고 국제인증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닌,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선미촌은 국내만이 아닌 세계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노송닉우스박물관은 선미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정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선미촌이 문화와 예술과 사람들의 온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붕없는 미술관'이나 '노송닉우스박물관' 같은 주민참여형 문화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민들의 힘으로 살아나야 지속가능합니다. 시에서도 인권과 예술을 주제로 한 거점시설 유치 등 선미촌 2.0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선미촌을 가장 특색 있는 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위로와 단비가 되는 노송닉우스박물관이 되길

박 병 술 전주시의회 의장

경자년 새해의 희망이 가득한 이때, 노송동의 지난 역사와 노송동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낸 「노송닉우스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노송닉우스박물관」은 과거 슬픔과 아픔의 감정이 서린 암울한 공간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예술과 문화의 힘을 통해 감동이 넘치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케 한 전국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박물관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요즈음 인권을 테마로 한 「노송닉우스박물관」의 역사적인 오늘의 첫 걸음은 어느 때 보다 소중하며 우리들에게 있어 위로의 단비와 같습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부활의 날갯짓을 활짝 펴고 날아가는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이, 사회적 냉대라는 짙은 그늘만이 드리웠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의 품안에서 따뜻한 희망의 햇살을 받으며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는 구도심의 모습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 모두의 마음에 크나큰 위로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노송닉우스 박물관이 끝없는 경쟁사회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그윽한 문화예술의 향에 취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정신적 안식처가 되길 바라며,

단순히 지역주민만의 향유물로 그치지 않고 고즈넉한 처마 밑으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느리지만 뚜렷한 발자국을 하나하나 남기어 전주시민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고 소통하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집house + 집ZIP 마다..

김 해 곤 총괄감독

「노송늬우스박물관」은 노송동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재생한 마을사 박물관이다. 시간의 흔적과 역사성이 스며있는 곳, 노송동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선미촌이라는 성매매 집결지가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되길 바라며 박물관을 추진하였다. 오랫동안 지역주민과 단절되어 왕래가 어려웠던 성매매 영업장소에서 박물관 개관이 이루어진 것은 노송동의 역사에 남을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다.

「노송늬우스박물관」의 개관 목적은 과거의 어두웠던 공간에서 노송동의 과거 · 현재 · 미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새롭게 조명하여 밝은 세상을 구현함에 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공간의 기억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승화되고, 지역주민이 이곳의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재구성함에 있다. 박물관 조성의 콘셉트로는 첫째, 건물 보존을 중시하여 변형을 최소화하고, 둘째, 모든 콘텐츠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데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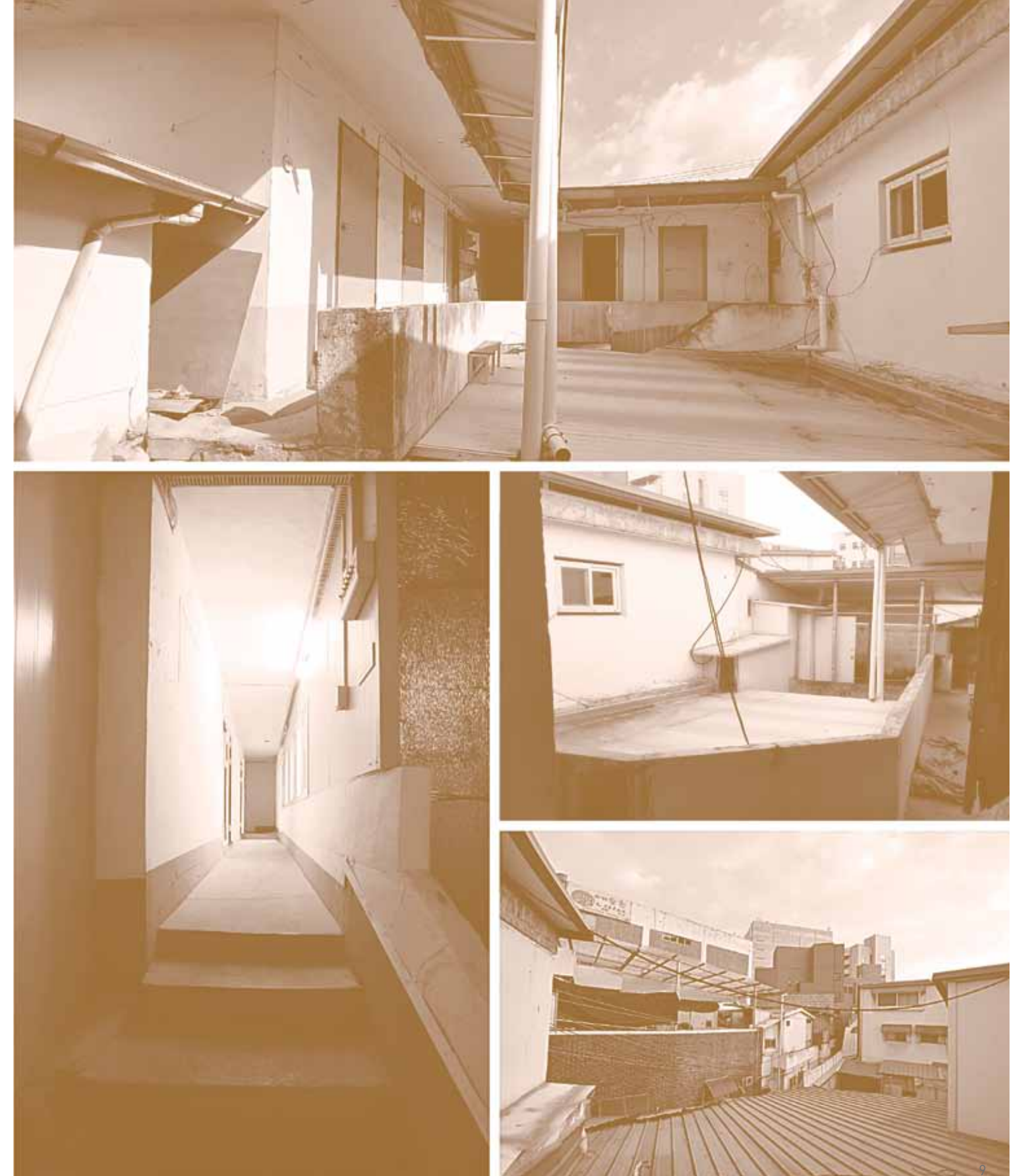
「노송늬우스박물관」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었다. 1층은 주민들의 전용 전시공간인 ‘무량 갤러리’와 선미촌의 끝이고 새로운 시작의 길의 염원을 담은 무량가든,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었다. 2층은 과거 성매매 영업을 했던 13개의 방을 모두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그 위에 작품을 설치하여 갤러리를 만들었다. 조형 예술가 5명의 조형작품 방, 신석정 시인의 방, 노송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카이빙한 ‘노송다큐21’, 노송동 현재의 삶과 생활상을 신문 형식으로 만든 ‘노송늬우스’, 전주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바라본 ‘우리 동네’를 그린 미래그림 방, 신일중학교 학생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메시지 기록 방, 노송주민 110명의 표정을 독창적 기법으로 묘사한 인물화와 인터뷰 및 아카이브를 기록해 놓은 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노송늬우스박물관」의 콘텐츠 구성을 위해 지역주민, 예술가, 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고, 이 프로젝트에는 연구원 두 명이 노송동 마을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대해 연구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했다. 이렇게 지역연구 탐사(探査)를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감춰진 지역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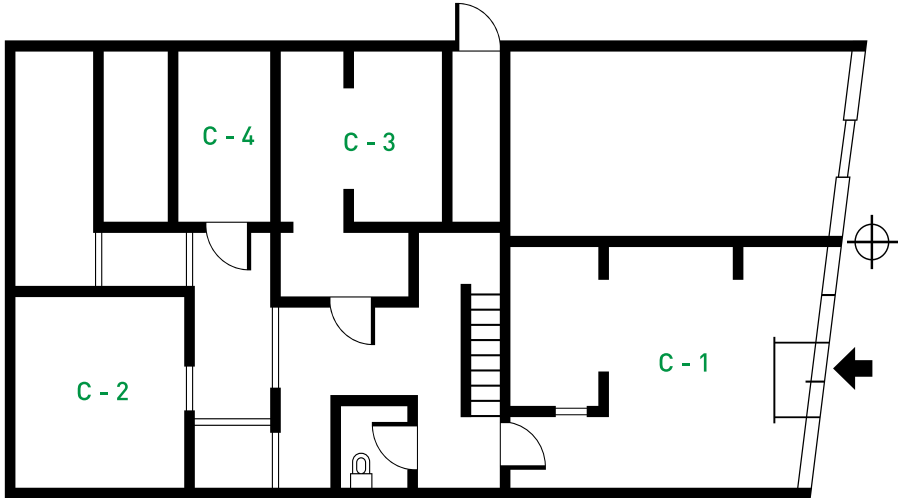
「노송늬우스박물관」은 노송동 지역주민들의 다채로운 인간사와 생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뮤지엄이다. 마을에는 주민들이 사는 집(house)이 있고, 마을의 다양한 데이터가 압축되어 보관된 집(zip)이 존재한다. 「노송늬우스박물관」은 집집마다 존재하는 노송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다양한 콘텐츠를 테마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창생(創生)을 통해 노송동 마을과 선미촌의 분절됨을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노송동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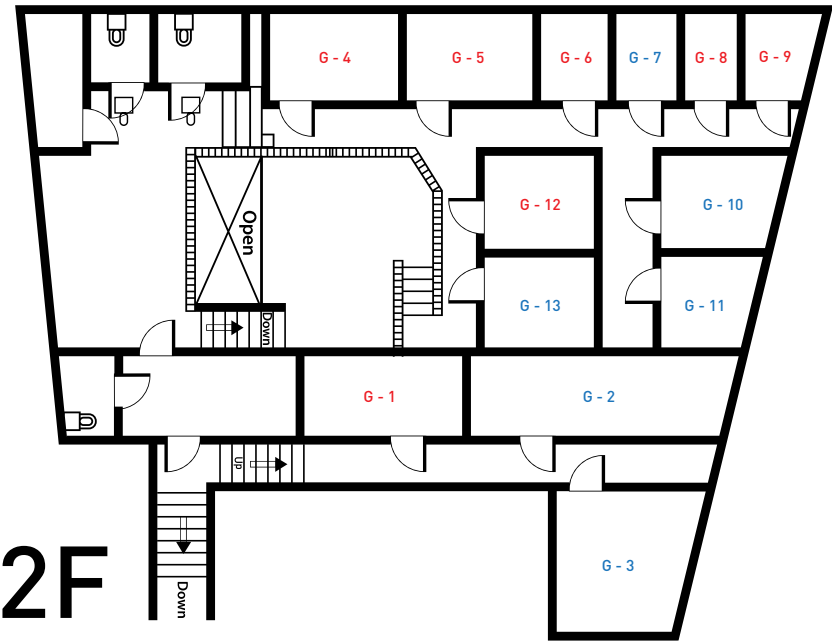
사업 전 박물관 건물 내외부



1F



Community C-1 무랑 갤러리 C-2 무랑 가든 C-3 문화사랑방 C-4 사무실



2F

Gallery
G-1 이재형 작품 방
G-2 미래 그림 방
G-3 노송다큐21
G-4 (김)범준 작품 방
G-5 강현덕 작품 방
G-6 신석정 시인 방
G-7 메시지 기록 방
G-8 정하영 작품 방
G-9 달콤 방
G-10 노송닉우스
G-11 영상 + 아카이브 방
G-12 정인수 작품 방
G-13 1004 마을 사람들

G-1 이재형 작품 방



방 규격 - 180×464×202cm



여성과 관련된 지역의 역사 속에서 여성에 대한 감성을 미디어로 표현한다. 과거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성매매 집결지 빈 공간에서 현시대에 소외받은 혹은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의 문제를 다룬다. 공간은 2개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인터랙티브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Window〉는 여성적 트라우마와 세상과의 소통을 주제로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창문 너머 관객이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 관객이 3~4미터 넘어 난간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창문이 열리며 그 방에 사는 사람과 마주친다. 방 안에서 간혀 세상을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스토리를 다양한 영상 이미지로 표현한다.

〈Face〉는 소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감성적 표현을 만들어낸다. 지역을 대표하는 집단 감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얼굴의 표정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그 변화의 근거를 웹상에서 단어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낸다. 이는 세상에 비춰지는 여성의 감성을 얼굴 표정으로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 치유와 관성의 메시지를 관객들과 공유한다.



〈Window〉 LCD 55인치 DID, PC, 인터랙티브 영상, 2019~2020

학 력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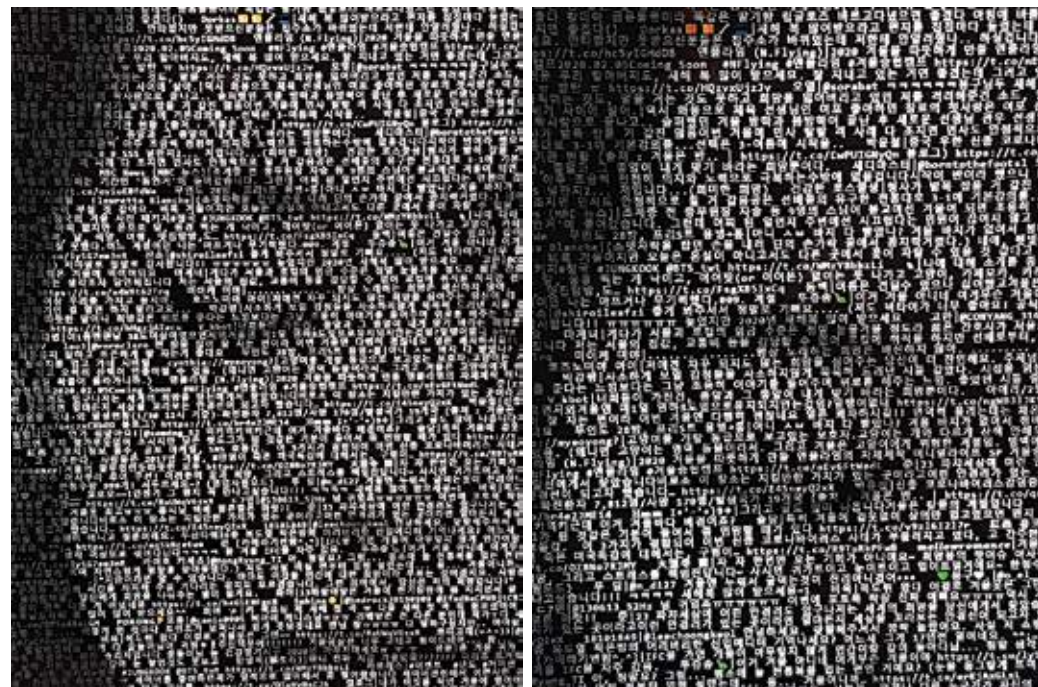
2010~2012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석사
2001~2009 고려대학교 서양화 학사

경 력 (Experience)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9
BORDERLESS ACCESS, ICT융합센터, 성남, 2019
빛의 파라다이스,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8
Do the right thing, 글렌데일 도서관 갤러리, LA, USA, 2018
천년 경기와 미디어아트와의 만남 in 불, 경기도 박물관, 수원, 2018
평창올림픽 미디어아트 특별전_Piece of Window, 저온창고, 평창, 2018
Siggraph asia 2017 art gallery, BITEC, 방콕, 태국, 2017

12

G-1 이재형 작품 방



〈Face〉
LCD 65인치 DID
인터랙티브 영상
2019~2020



G-4 (김)범준 작품 방



방 규격 - 220×420×210cm

「관계의 형태」

세 개의 돌이 있다. 작가의 이전 작업에 등장하였던 예술가의 돌은 개인과 예술을, 마을을 돌아다니다 주운 마을의 돌은 공동체와 일상을, 인도(人道)에서 떨어져 나온 행정의 돌은 시스템과 행정을 의미한다.

돌의 상징(symbol)을 각각 머리 위에 얹은 세 대의 로봇청소기가 돌아다닌다. 각각 자신의 길을 정하여 전진하며 서로 부딪칠 듯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섞일 듯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시스템이 삼자구도를 이루며 반복적 움직임을 통해 관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브제 작동시간]

1. 13:00 ~ 13:30

2. 15:00 ~ 15:30



학 력 (Education)

2013~2019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인터미디어아트 석사

2005~2009 계원예술대학교 매체예술 학사

경 력 (Experience)

일어서는 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중국, 2019

농담, 결코 가법지 않은,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2019

북경발전라특급,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9

첩첩산중,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9

대청소, 성가주방, 전주, 2019

모산 모산 모산,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2019

핑계 없는 무덤, spacexx, 서울, 2017

with nothing, 플레이스 막, 서울, 2011



〈관계의 형태〉 로봇청소기, 돌, 벽지, 목재, 모니터 움직이는 오브제 2020

G-4 (김)범준 작품 방



G-5 강현덕 작품 방



방 규격 - 220×420×224cm

「21900번째의 빛」

큐브모양의 200개 넘는 아크릴박스와 여러가지 흔적조각들이 설치되어있다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잃은 채 살아가곤 한다.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약자들에게 상처받길 강요하며 살아왔다. 선미촌과 서노송동의 버려진 유리조각들, 장난감 조각들, 나뿔구는 쓰레기들에는 누군가의 상처받은 사연들이 묻어난다. 60년 동안 홀로 방치되어있던 유리조각들과 움크려 있던 여러 조각들을 수집하여 조명 받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의미로 작업을 하였다. 작가는 선미촌의 어두운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노송동의 더 나아가 선물 같은 미래를 얘기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원하는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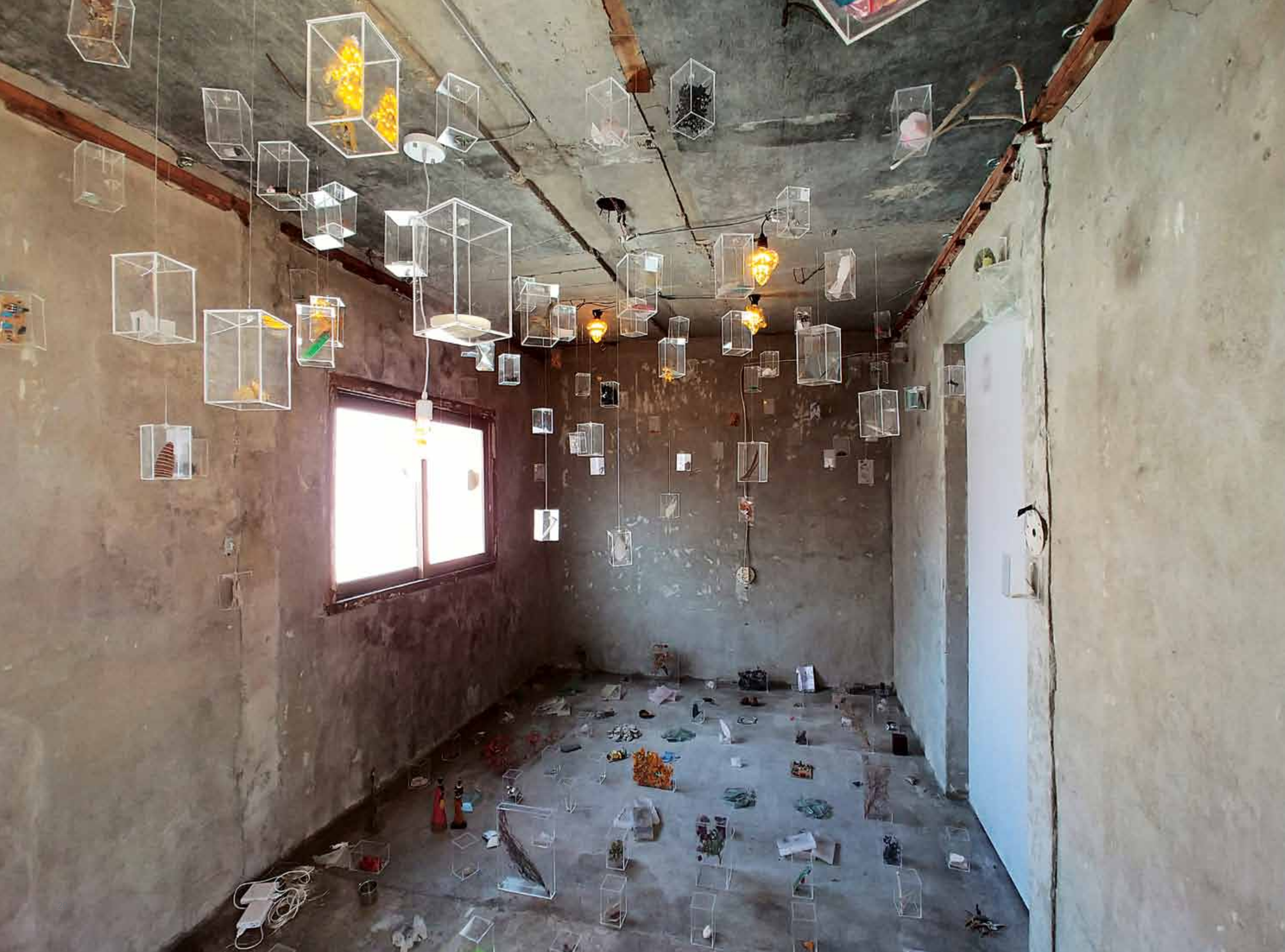


학 력 (Education)

2011~2015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학박사
1997~2006 브레멘, 함부르크예술대학교 순수미술학사, 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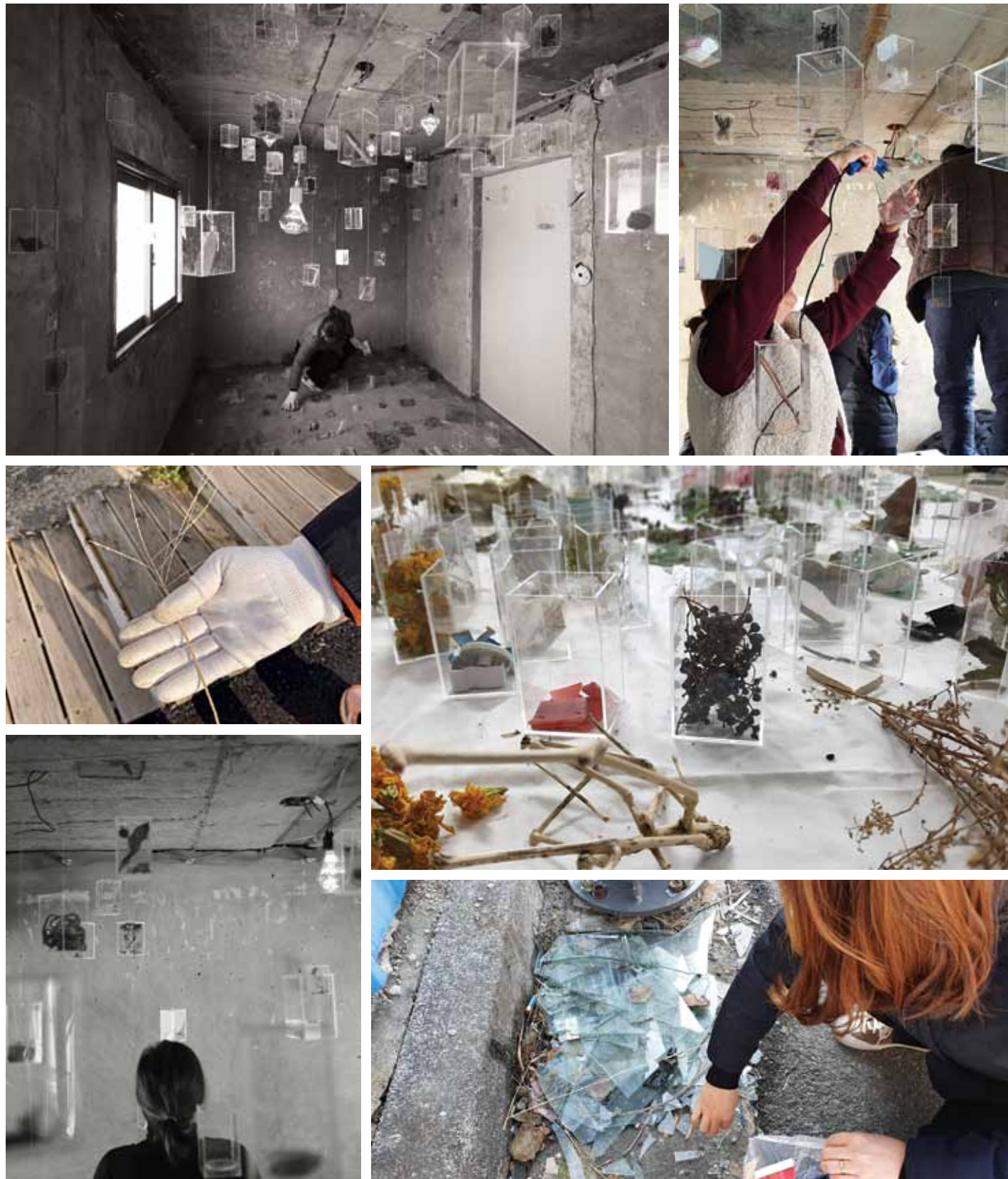
경 력 (Experience)

리싸이클,업싸이클, 홍앤홍 갤러리, 서울, 2019
단 한번의 반짝임, 대담 미술관, 담양, 2018
썩은 바나나,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 2017
너의 이름은, 교동아트스튜디오, 전주, 2017
나만의 완충지대, 갤러리 숨, 전주, 2015
value, projekthaus Hamburg, 독일 함부르크, 2014
전통문화특별전, 삼청각, 서울, 2013
아름다운 인생, DasKontor Kunsthaus, 독일 쉬베린, 2012



《21900번째의 빛》
아크릴박스(7×10×7cm)
LED조명, 노송등 흔적 조각들
(현장수집)

G-5 강현덕 작품 방



G-8 정하영 작품 방



방 규격 - 220×200×272cm

「아름답고 충실한 지층_ 빠르게 혹은 느리게..」

1. 나에게 기억되는 첫 집이 노송동의 한옥이었다. 길과 골목의 첫 집이었고, 기와 지붕에 마루가 있었던.. 한지를 바른 격자문과 재래식 화장실에 아궁이가 있던 부엌까지.. 어렵겠지만, 마당의 화단 너머 우물이 있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있었다. 그곳에서 일곱 살 때 세일러원복을 입고 미술학원에 다녔고, 여덟 살에는 풍남국민학교에 입학했다. 1981년에서 1982년의 풍경이었다.

그 후 반 년 만에 아버지의 전근으로 군산으로 이사를 가며 노송동은 내 기억저편의 추억이 되어 어쩌면 굳게 닫혀 버렸다.

2.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면할 수 있는 군산에서의 새로운 삶에 무척 기대가 컸고, 삶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신다. 물론 우리도 엄마의 기운을 받아 군산에서의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삶은 항상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다.

한 가정의 역사와 기억은 어쩌면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기억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3. 물론 나에게 노송동에서의 삶이 불행했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미숙했던, 지금은 너무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그래서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을까?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놀았던 추억과 친구의 집을 찾아 헤매던 기억, 어려서 수줍음이 많은 탓에 바지가 찢어진 것이 창피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방에 숨어 있었던 기억, 그리고 간간히 엄마나 언니의 이야기로 기억되어진 장면, 장면들..

일하러 가신 엄마 대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간 풍남국민학교 입학식에서 찍은 기념사진 속 떨떠름한 표정의 나를 보면 그때의 기억 못할 기억도 되살아나곤 한다.

4. 그래.. 그 집.. 하면 생각나는 나의 수호수 은행나무.

언제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를 반겨주던 그 푸릇푸릇한 생명력에 압도되었던.. 그리고 어느 날인가 노오랄게 떨어진 은행잎들 사이로 보였던 뽕알다 못해 투명했던, 눈도 채 뜨지 못한 새끼 쥐의 죽음을 목격한 어린 소녀를 담은 그 풍광을 나는 지금껏 잊지 못한다. 징그러거나 두렵다가 보다는 참.. 애처로웠던 그 마음을.. 지금도 기억한다.

5. 여자의 삶.. 노송동 그 집에서의 여자의 삶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참 애처롭다. 어린 내가 다 알지도 감싸주지도 못했던,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어렵פות이 감지됐던, 3대가 함께 했던.. 그랬던, 세 여자의 삶이 어쩌면 닳아 있다.

6. 또 다른 여자의 삶.

그 여인들도 내가 설마.. 여기까지 쫓기듯 오게 되리라 생각하진 않았을 거야.. 그녀들 중 어느 누구도 결국 자의로 여기까지 오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건, 사회가 그녀들을 여기로 내 몬 거야.. 바로 당신들이, 어쩌면 우리가.. 그녀들을 이곳까지 내 몬 거라고! 그걸 아직도 모르겠니? 바로 여기서 고립된 그녀들도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던 걸.

7. 여자의 방.. 외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여자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의 대가는 묵인되어지고, 여전히 차별받고 부조리한 사회적 통념에 맞서기 위해서는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침범 받지 않을 자기만의 방 안에서 다시 꿈 꿀 수 있는..

A Room of One's Own.



〈아름답고 충실한 지층 _ 빠르게 혹은 느리게.〉
케이블타이, 투명마네킹, 육각형 거울,
PVC캘지 프린팅, LED조명 아크릴박스 외 혼합재료
2019 ~ 2020

8. 노송동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에피소드..

여성의 웨딩드레스의 의미, 높은 소나무 껍질 같은 켜켜이 쌓인 삶의 이야기.. 붉은 색 웨딩드레스가 육각의 조합된 거울에 다각으로 비춰진다. 방 안의 사각의 사진 틀 안에는 그간의 시간의 흔적들이 때론 추억이라고 간직될 수 없는 시간의 기억들이 드러나거나 드러낼 수 없어 문자화 된다. 사라진 순간의 의미는 시간의 지층에서 현전화 한다.

노송동에서 선미촌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아직 풀지 못한 때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같은.. 육각의 도형의 결합을 통해 여성들의 연대를 보여주고자 하며, 타이를 엮어 만든 드레스 또한 묶고 매듭 짓는 행위를 통해 엮매이거나 구속된 여성의 삶을 드러내 보임으로서 다시 한 번 직시 하고자 한다.

9. 성인이 되어 다시 찾은 노송동은 한때 잘 살았는데 가세가 기운 내 친구의 집이었고, 새로 이사한 우리 집으로 가기 위해 지나는 길목에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원시절 2개월간 우유배달을 했었는데, 배당된 배달지역이 노송동과 선미촌 일대였다. 늦은 새벽의 노송동의 주택가와 선미촌의 풍경이 사뭇 달랐던 기억이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곧 동이 터오를 무렵의 새벽.. 똑같이 인적은 없고, 우유를 넣기 위해 아무도 없는 밝은 유리방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담배냄새와 향수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르던 그 찌든 냄새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사람의 냄새를 숨기는 듯한 알 수 없었던 그 냄새. 그리고 다시 찾게 된 선미촌 답사에서 그때 맡았던 그 냄새를 다시 마주했다. 세월의 흔적과 함께 귀퉁이 곰팡이 냄새 속에서도 구분됐던 그 냄새를..

10. 노송동 Never Ending Story..

이제는 빈터만이 나를 반기는 나의 옛집이여 안녕! 우물은 메우고 메워도 흔적을 머금고,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베어져서 어느 집의 탁자받침이 되었지만, 나무의 밑 등이 있던 그 자리엔 검은 솟은 남아있지.. 초록 대문은 떨어져 소멸됐지만, 그 흔적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다. 그 빈터에 앞으로 어떤 집이 지어질지.. 어떤 이야기가 생성될지.. 결국 끝내지 못한 이야기만이 그 빈터에서 서성인다.

학 력 (Education)

2002~2006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 석사

1994~1997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학사

경 력 (Experience)

3.1운동 100주년 특별전 '만민이 한마음 대한독립 만세'展, 전주역사박물관, 전주, 201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전시회'다시 평화', 전주영화제작소, 전주, 2019

2019 양성평등주간 기획전- 살림하는붓질4展 '낫-삶', 김만덕기념관, 제주, 2019

미투운동, 전북지역현장기록전 '우리 모두를 위한 불편한 진실' 전주영화제작소, 전주, 2019

다름 Different을 마주하다 展, 교동미술관, 전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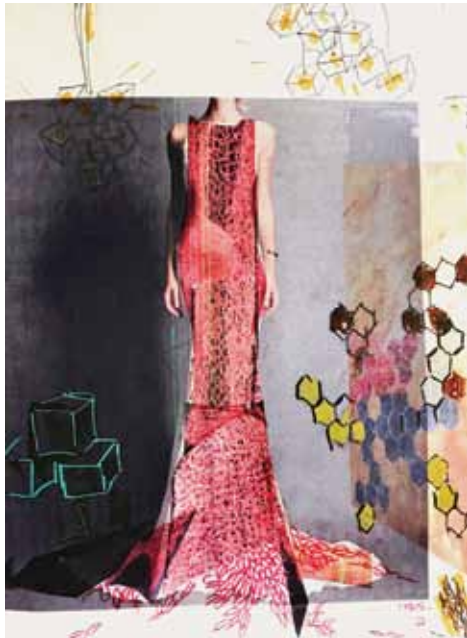
2018 여성인권 비엔날레 '선미촌 리본 프로젝트II', 선미촌 기억공간 외, 전주, 2018

'하루살이 미술가의 고뇌 _ 잠:기다' 기획초대전, 숨 갤러리, 전주, 2018

'八福徳房 팔복덕방' multilevel project 커뮤니티작업 팔복예술공장, 전주, 2018~2016

'Go back _ 하루살이 미술가의 고뇌' 개인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2015

G-8 정하영 작품 방



G-12 정인수 작품 방



방 규격 - 270×397×207cm

「노송동 스케치」

어떤 순간의 자연환경을 만났을 때 작가는 자신의 삶속에서 이뤄진 궤적과 생각의 순간이 그림으로 반영되지요.

저의 그림은 작은 선긋기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수도자의 수행처럼 하루의 현재가 지나갑니다.

저의 작업은 펜촉에 먹물을 찍어 그들의 삶과 숨만큼이나 많은 선과 선이 집적되어 그려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는 지극히 수동적인 그림이지요, 사물이나 풍경과 교감하는 그 순간이 직감적으로 이뤄져 만들어진 것 입니다.

단순히 대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작가의 감동을 현실화 한 것입니다.

노송동은 빌딩의 그늘에 가려진 오래된 시간을 견디며 골목을 지키고 살아낸 날것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골목의 사람들은 어깨를 부비며 서로의 정을 나눴을 터, 삶이 고단할 때 등을 토닥이며 쉴 수 있도록 의자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탄식이 절로나는 골목길 모퉁이의 집들, 길 만큼이나 고불고불 뒤편거리며 수레를 끌고 가는, 그 한평의 집을 지키는 노인들의 걸음이 느립니다. 좁은 길은 60cm ~ 80cm 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의 골목에 서로의 문을 내고 이웃하며 살고 있는 넓은 품을 느꼈습니다.

참담함보다 순응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의 포근한 마음을 느끼고 허름한 문패들의 집들과 늘어진 전기줄과 삶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들...

따뜻한 아침 햇살이 목을 가득 채우고 굳게 잠긴 대문 앞 풀들은 주인 없는 집을 지키며 겨울로 걸어 갑니다. 물왕벌 길

작가는 좁은 길의 느낌이 감동과 동반하여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단순한 선과 선이 반복되는 행위로 만들어져 그들이 간직한 시간이 축적 되었고, 기억의 응집으로 흔적되는 풍경이 그려졌지요.

그것은 세월과 함께 숨쉬며 희망 잃지않고 살아낸 마을 주민들의 승리 입니다.

21세기 다시 돌아온 복고의 문화 트렌드가 각박한 현대인들의 경쟁 속에서 조금 늦추는 여유로움이 휴식되기를 바라며 담백하고 고즈넉한 인심을 그립니다.

노송동의 골목 풍경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겠으나 이 아름다운 숨이 형태의 다름으로 부서지지 않기를 바라고 각자의 파란 하늘에 희망의 그림되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 02. 03.

학 력 (Education)

2001~2003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학사

1998~2000 백제 예술대학 서양화 학사

경 력 (Experience)

未完, 우진문화공간, 전주 2019

waching 리얼리티, 전주현대미술관, 전주, 2019

동물로 풀어보는 전복의 해학, 삼례예술마을 뭉치, 완주, 2019

경기전에 온 미술가 드로잉전, 교동미술관, 전주, 2018

汝我間 '꽃심', 이동형 갤러리, 전주, 2017

나의 살던 고향,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2016

時節 - 행복한 귀환, 누벨백 갤러리, 전주, 2015



〈노송동의 스케치〉 가변 사이즈 40개, 아르쉬지, 아크릴, 먹, 펜 2019~2020



〈노송동의 스케치〉 27.3×41cm, 아르쉬지, 아크릴, 먹, 펜 2020



〈노송동의 스케치〉 27.3×41cm, 아르쉬지, 아크릴, 먹, 펜 2020



〈노송동의 스케치〉 33.3×53cm, 아르쉬지, 아크릴, 먹, 펜 2020



〈노송동의 스케치〉 41×53cm, 아르쉬지, 아크릴, 먹, 펜 2020



「 두 개의 창 」

이 작품은 두 개의 액자를 통해서 이해(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작품이 설치된 방은 닫혀 열리지 않도록 되어있다. 문짝에 부착된 아주 작은 액자를 통해서만 방안에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 작은 액자는 창이다. 영혼의 창이자 정신의 창이고 마음의 창이기도 하다. 방 안에는 또 하나의 액자(창)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액자 가운데에 조각상이 놓여 져 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혼을 상실한 채 물질 쾌락과 화려한 유혹만을 쫓는 현대인의 초상이다. 끝없는 욕망의 순환 회로 속에 갇혀 있는 채 불가능을 갈구하는 자들, 맹목적인 탐욕과 허영, 타락한 육체의 세계, 모순된 욕망, 악한 욕망 등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저편의 또 다른 어두운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짝에 부착된 액자(영적 창)와 방안의 설치된 액자(혼재의 창)는 인간들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눈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 현재까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선악의 양면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영혼을 상실한 채 육체적 쾌락과 화려한 유혹(욕망)만을 쫓는 존재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끝없는 욕망의 순환회로 속에 갇혀 있는 채 불가능한 초월을 갈구하는 인간들, 맹목적인 탐욕과 허영, 타락한 육체의 세계, 모순된 욕망, 저열한 욕망과 쾌락, 악한 욕망 등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저편의 또 다른 어두운 세계가 존재한다.

이 작품은 인간 본연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뒤틀어진 세계관을 표현했다.



방 규격 - 220×160×272cm

G-9 달콤 방



《달콤한 유혹》 138×70×70cm, FRP, 액자, 모터, 조명 등 2016~2020

G-6 신석정 시인 방

신석정 시인을 기리는 방으로, 시인이 살면서 사랑했던 여러가지를 이야기와 사진을 통해 그의 삶을 모뉴먼트화 하였다. (방 규격 - 220×160×272cm)

‘슬픈牧歌’속에 산 사색의 일생

흠에 살다 흠에 묻은 孤高(고고)한 抒情(서정)

1907년~1974년. 본명은 석정(錫正). 관향은 寧越이다. 구한말 간재 전우 아래에서 유학을 닦으신 신기온(辛基溫) 선생과 부덕검비한 이윤옥(李允玉) 여사 차남으로 1907년 7월7일 전라북도 부안군 동중리에서 태어났다.

부안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일찍이 망국의 한에 젖으신 선생은 명리보다 시문의 길을 걸었다. 1924년 朝鮮을 비롯 東亞, 中央의 지상에 시를 발표하였다. 1926년 萬頃의 密陽人 박소정(朴小汀)구수와 성례를 올렸다. 그 뒤 1930년 상경하여 지금의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 전신인 중앙 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 박한영(朴漢永)문화에 1년 남짓 불전을 연구하며 회람지 『圓線』을 편집하기도 하였다. 일 여년 끝에 전원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귀향 1933년 청구원 집을 마련했다.

겨레의 향수를 노래한 목가시인 한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지조지켜

1939년 첫 시집 『춧불』이 상재되자 김기림은 시문학사에 휘황한 햇불을 밝혀든 목가시인이라 말하였다. 겨레의 향수를 노래한 목가로서 독자들의 공감대 또한 드넓었다. ..중략 선생은 일제 말 협박 강요하던 창씨개명을 거부하기 위하여 생계를 꾸려야 할 직장도 버리고 군정집의 위협에 한 동안 잠적할 정도로 일제에 저항적이어서, 문예지에 투고한 작품이 사상불온으로 검열에서 삭제되기도 했고 일문으로 시 쓰기를 청탁받았으나 ‘차라리 푸른 대’로 살기 위하여 여아에 붓을 꺾었다.

30년대를 관통한 한국시단의 巨星(거성) 격동의 현대시를 고고한 抒情(서정)으로 꽃피워

사실 선생의 시 정신은 평생을 관통했다고 할 수 있다. 선생은 생활과 시를 하나로 보았다. 생활에서 시를 찾고 시에서 생활을 찾았다. 생활에서 시를 찾을때 천자연적인 목가시인이 되고, 시에서 생활을 찾을 때 시대적인 참여 시인이 되었다. 시는 시적이고 생활은 생활적이다. 이 둘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선생의 시세계를 꿰뚫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변증법적으로 정과 반과 합을 통하여 진보 발전을 거듭하는 참다운 시정신인 것이다. 선생은 단지 시 창작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선생은 한시에서 시적 감성을 길어 올려 시 창작의 에너지로 삼았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한시도 번역하게 되었다. 제대로된 한시 번역서가 없을 때 선생이 번역한 한시는 교과서다운 역할을 담당했다. 또 향리 출신인 이매창의 시를 번역하여 지방의 천민 시인으로 잊혀진 그녀를 조선의 빼어난 시인으로 새로 부각시켰다. 선생은 때로는 논설과 수필로 자신과 이웃과 국가와 자연이 가지는 당위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이성과 감성을 통하여 여과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기와 기행, 그리고 편지와 전기 등 다양한 장르를 동원하여 스스로를 노출시켜 사회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선생은 습작 투고기에 소설을 쓰기도 했다.



박물관 내 시인의 방



비사벌 초사(과거 시인이 살았던 집) 항공사진

G-6 신석정 시인 방

선생은 시론을 직접 집필하여 이를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에 입각하여 각종 현상모집에서 시작품을 심사하고, 이러한 시론으로 많은 후학들의 시집이나 저서에 서문을 엮어 그들을 지도 편달하고 고무시켰다. 또 문예지의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여 여러 시인들을 문단에 등용시켰다. 1973년 12월21일 전북문화상 심사도중 뇌혈전증의 졸도한 석정은 200일이란 기나긴 시간을 병상에 투병했으나 1974년 전주 남도송동 비사벌초사에서 향년 예순여덟으로 일기를 마쳤다.

1939년 처녀시집 『촛불』을 시작으로 1947년 제2시집 『슬픈목가』, 1956년 제3시집 『빙하』,1967년 제4시집 『산의 서곡』, 그리고 1970년 제5시집 『대바람 소리』 등 한국시단에 불후의 공적을남겼다

—석정문학관 홈페이지 참조—



신석정선생의 친필원고



박물관 내 시인의 방 - 일생을 글 쓰는데 몰두해 온 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모뉴먼트



시인이 살면서 사랑했던 가족과 나무와 시들



박물관 내 시인의 방 - 책과 친필원고

G-2 미래 그림 방

전주동초등학교 234명 학생들이 ‘우리동네(노송동)’를 그린 것으로, 아이들이 바라보는 노송동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작업방법은 아이들이 종이와 매직을 이용해 스케치를 한 후, 전문 작가가 레이저 마킹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만든 작품을 레이저로 마킹을 하고 다시 네 명의 예술가들이 채색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목판에 아크릴 물감으로 잉킹하기를 수 차례. 희망과 대지, 동심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채색하여 작품을 완성한 어린이와 예술가의 협업작품이다.

성인들이 바라보는 노송동은 과거를 간직한 현재이지만, 학생들에게 미래의 추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인 동시에 언제나 돌아가고픈 마음의 고향이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기억속의 아련한 공간이 이곳에서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 규격 - 180×270×202cm)

전주동초등학교 참여학생 명단

1학년 1반-김가은, 김소연, 김유민, 김지민, 나솔희, 서민아, 양지우, 이민지, 이혜윤, 전혜솔, 하지현, 김도현, 김선혁, 김지훈, 김형명, 류아인, 박준혁, 변지훈, 심준희, 윤상현, 임현우, 조지후, 채현창
 1학년 2반-김도윤, 김수빈, 김주림, 김채희, 박근주, 백현진, 심가현, 이규리, 이아란, 장진, 정하은, 김도현, 김민결, 김성현, 김태선, 박성현, 박효준, 서민재, 오진혁, 유광현, 이현성, 이예찬
 2학년 1반-강하은, 김민서, 김지원, 나유진, 박서연, 박소울, 서은혜, 손서연, 송민아, 이은솔, 최가인, 최재은, 고송재, 김민석, 김민식, 김승준, 김예준, 김원민, 박준서, 박하랑, 신우진, 이준이, 이채훈, 전지완, 최지웅, 김건영
 2학년 2반-김그린, 김윤아, 박기은, 손세아, 신보경, 신하은, 안서윤, 이유경, 이하울, 이하은, 한서형, 홍지민, 이예빈, 김성현, 김우주, 김정무, 김제영, 김준희, 박서빈, 서동화, 송현, 정민영, 정시우, 조승현, 조용준
 3학년 1반-강현아, 박세연, 박윤정, 박지원, 오청민, 이승현, 이예린, 이화진, 하수빈, 이시원, 김건우, 김다민, 김도현, 김동욱, 박범준, 배서우, 서병모, 이태영, 최은율
 3학년 2반-김랑희, 배하늘, 변수진, 송은지, 심선미, 안서윤, 이아진, 장현, 정의현, 강현성, 고형신, 김원범, 류가은, 양유철, 이규인, 이민혁, 정호현, 주해인, 김범식
 4학년 1반-박시현, 박효은, 오채영, 임지수, 장나연, 강민찬, 김상훈, 김예현, 김찬희, 배건, 송규현, 송석찬, 오기윤, 이에서, 장한결, 장효주, 황지현
 4학년 2반-김상지, 김하영, 박다민, 박동균, 박태훈, 배한솔, 서동건, 서민수, 송민호, 양도현, 유건빈, 유건아, 전민재, 정은비, 조하은, 지성민, 최수민
 5학년 1반-박지영, 변수정, 이다희, 이수빈, 이승연, 정주은, 한수빈, 김동혁, 김세현, 김현우, 박찬민, 양지웅, 이영진, 임선재, 정재원, 홍태경, 황지후
 5학년 2반-김민중, 양하진, 이선우, 이은혁, 장원영, 정주열, 최재성, 최지혁, 하주성, 최태혁, 기미건, 김하영, 박정빈, 서은영, 안서연, 오하은, 이소정, 전에서
 6학년 1반-김남희, 김윤서, 신윤화, 안세희, 유지원, 유재린, 이선경, 장은, 장준선, 김무송, 김태영, 김현성, 문용연, 박한빈, 배준건, 서동현, 오기백, 이대성, 이석윤, 정세현
 6학년 2반-강현지, 박지연, 양하미, 유진주, 이솔미, 정지수, 최지아, 탁미성, 김도경, 김민규, 김민석, 김성안, 김수혁, 김승지, 박산, 유현진, 이용후, 정재훈, 진현준, 이태현 (2019년 기준)



노송의 사건 사고를 다룬 역사 아카이브

21세기에서 바라 본 노송동으로, 36개의 주요 사건사고를 아카이브하여 전시 하였다.
과거의 주요 이슈를 돌아봄으로써 서노송동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과거의 기록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노송동은 후백제 시대, 견훤이 이 곳에 도성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견훤의 도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명들이 노송동에 존재한다.
고려 시대엔 유적은 확인 되지 않으나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동고산성 일대의 성황당에 관련하여 쓴 전설 글이 전해진다. 전주목과 관련하여 제의시설이 있었고 그곳에서 제례가 행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태종 때에 이루어진 전주부성의 대대적인 수축으로 인하여, 전주부성의 외곽지역으로 분리되었다. 전주의 중심인 부성과 인접되어 있음에도 소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부성의 외곽 4방향으로 부동면, 부남면, 부서면, 부북면 중에서 부북면의 노송리에서 비롯되었다. 노송리라는 지명은 현재 전주고등학교 주변에 늪은 소나무가 많아서 노송리라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초기 도심의 외곽지였던 전주군 부북면의 지역. 전주농림학교(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주고등보통학교(현 전주고등학교), 전주여자보통학교(현 풍남초등학교), 전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주여자고등학교)등 교육시설과 병원시설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주역이 노송동으로 이전하면서 전주역과 관련된 관사, 형무소, 헌혈원, 각종 실험실, 병원시설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았고 철도 주변으로 주민들을 비롯하여 물자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시기에 연탄공장, 제사공장, 석재가공공장, 제과공장 등 제조업이 발달되었고 선미촌이 만들어졌다.
1910년대 전라선 철길이 생기고 전주역 형성이 되었고, 이 후, 역안근에 유락이 형성되었다.
1915년 전라북도 고시 73호 전주면 노송동 설치 되었다. 1940년 10월 어일 전주부(시)에 노송리가 편입 되었다.

6.25전쟁 시기에 많은 피난민이 모여들어 노송일대에 판잣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피난촌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전주시에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송동이 주거지역으로 계속 성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 전주시 덕진동에 종합경기장이 건설되면서 인봉리 공설운동장은 철거되었다. 1970년대 공설운동장 철거된 자리에는 대규모 주택단지인 문화촌이 들어섰다. 1980년대 전주역이 우아동 일대로 이전되고 전주농고, 전주여고, 영생학원 및 영생전문대학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 되면서, 고교 평준화로 전주고등학교 주변으로 하숙집, 자취방, 독서실등이 점차 사라졌다. 그러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상실했다. 1990년대 지금의 성매매 집결지로 형성 완료 되었고, 1994년 8월 8일 중노송동 1가동, 2가동이 중노송 1동, 2동으로 개칭 되었다.
2003년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육교가 건립 33년만에 철거 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2005년 8월1일 완산구 중노송1동, 중노송2동, 남노송과 덕진구 서노송동이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통합 되었다.



2019년 12월 29일 해마다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아와 몰래 성금을 두고가는 얼굴없는 천사, 올 해도 어김없이 전화가 주민센터에 왔고, 주민센터 직원들은 해당 장소로 가 상자를 찾아봤지만 발견이 되지 않아 도난 됐음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2019년 12월 30일 충남 논산시 부근에서 용의자 검거.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성금을 가져간 용의자의 뒤를 쫓았다.

노송동은 2000년부터 변함없이 기부를 해 온 얼굴 없는 천사로 인해 전국에 유래 없는 천사마을이 되었다.



방 규격 - 280×390×202cm



일제강점기
1910.8.29 > 1945.8.14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한반도를 침략하여 조선의 주권을 빼앗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 시기에 대한군정, 군사정권, 군사독재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대한군정, 군사정권, 군사독재가 실시되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한반도를 침략하여 조선의 주권을 빼앗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 시기에 대한군정, 군사정권, 군사독재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대한군정, 군사정권, 군사독재가 실시되었다.

1950.6.25 > 1953.7.27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3년간 계속되었다. 이 전쟁은 3년간 계속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3년간 계속되었다. 이 전쟁은 3년간 계속되었다.

1970.7.06 > 1983.11.24

197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983.12 > 2019.12.30

1983년 12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1983년 12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G-7 메시지 기록 방

전주신일중학교 136명 학생들이 '우리 동네(노송동)'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현재 노송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바라는 우리 마을에 대한 미래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작업방법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하게 한 후, 전문 작가가 레이저 마킹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만든 작품을 레이저로 마킹을 하고 다시 네 명의 예술가들이 채색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목판에 아크릴 물감으로 잉킹하기를 수 차례, 미래와 정신적 세계를 파란색계열로 채색하여 작품을 완성한 중학생들과 예술가의 협업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은 노송동의 미래를 만들어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변해갈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전시장에 부착된 이러한 기록은 학생들에게 타임캡슐로 남아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2019년 기준)

[illegible]

방 규격 - 220×210×204cm



G-10 노송닉우스

『노송닉우스』는 마을의 현재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신문 형식으로 엮은 마을 아카이브지

『노송닉우스』 섹션별 구성

1면, “마을 주민 인터뷰 흘러간 노송동의 흔적들” 마을 주민 박종철 인터뷰

섹션 1 – “안녕하세요”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20년 넘게 전주문화예술현장을 뛰어 다니는 문화 지킴이 김남규 의원, 김윤철, 김원주, 최용철
지역구 시의원의 『노송닉우스박물관』 개관 기념사

섹션 2 – 노송마을의 대표 공동체인 “물왕벌 공동협의회”, “1004마을협의회” 탐방

섹션 3 – 전주미래유산 탐방 (전주시가 지정한 미래유산 43곳(2019년기준)중 노송동에 지정된 4곳을 탐방 / 전주역 터(17) / 비사벌 초사(14) /
노송동 천사(03) / 문화촌 공공건축물(38))

섹션 4 – 우리마을 활동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조선휘 센터장, 물결서사 임주아 대표, 장근범 사진작가 인터뷰)

섹션 5 – 명인, 명사 (마을의 유산 / 신성정 시인 / 전주고등학교 탐방)

섹션 6 – 주민 인터뷰 (노송의 주역들의 살아온 이야기)

섹션 7 – 가볼만한 곳 (선미촌 1호점- “696번가의 빛” 전시소개 / 중앙시장, 얼굴없는 천사길)

섹션 8 – 무량갤러리 (무량갤러리 전시에 참여한 주민예술가 6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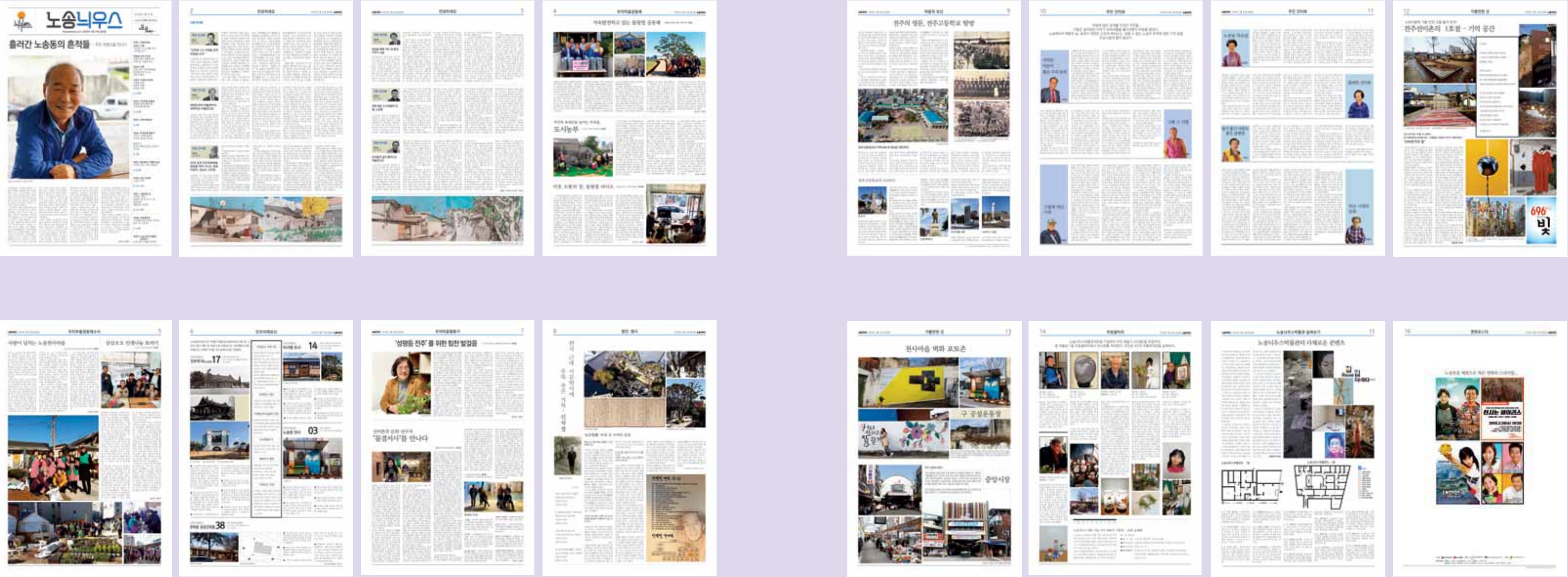
섹션 9 – “노송닉우스박물관” 살펴보기 (노송닉우스박물관 콘텐츠)

『노송닉우스』는 노송의 현재 이야기를 다룬 마을신문 창간호다. 이 창간호에 이어 마을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실은 많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발간되길 바란다. 또한 노송마을재생, 주민들의 숨은 이야기 발굴, 공동체의 활발한 활동, 서노송동 문화예술촌 이야기, 문화창생 등 “노송닉우스박물관”의 콘텐츠 발굴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길 꿈꾼다.



방 규격 - 300×270×243cm





G-11 영상 + 아카이브 방

전주시 정치인들과 노송 주민들의 모습들을 인터뷰로 기록하였다. 주민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경험하고, 현재 일상의 흔적들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송의 미래를 짐작 할 수 있는 나침반으로 삼고자 한다.

인터뷰방에는 4가지의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으며, 1963년도 상공에서 바라본 전주의 지도, 노송동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 드라마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4종의 영상물은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김남규의원, 김윤철의원, 김원주의원, 최용철의원의 노송박물관 개관 기념사, 노송주민 22명의 인터뷰, 노송의 역사와 변천사를 다룬 티브로드전주방송사의 다큐멘터리, 노송뉴스박물관조성 아카이브가 영상물로 제작되었다.



방 규격 - 216×285×243cm



G-13 1004마을 사람들

노송주민 110명의 표정을 독창적 기법으로 묘사한 인물화다.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의 표정에는 개성과 세월의 역사가 아름답게 드리우고 있다.

주민들이 말로 주민들은 일제강점기, 6.25전쟁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다. 살아 있는 역사였다. 나라 잃은 슬픔을 너희는 모른다고 하셨던 할머니, 또 다시 빨갱이가 쳐들어 올까봐 지금도 무섭다고 하셨던 할머니, 오후 5시 이후로는 밤길을 조심하며 다니라고 걱정해주시던 할머니, 노송동이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던 할머니 등등. 이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시대가 있는 것이다. 감사와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다.

주민들은 노송의 주역이면서, 전주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 얼굴의 주름에서 세월을 지탱해 온 노숙함이 물씬 풍긴다.

나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없었다. 기반이 없어서 연탄 장사와 철물집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쳤다. 우리 세대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갖은 고생을 하고 살았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다. 일제 강점기에 아버지가 지중으로 잡혀갔다. 어머니가 이장한테 가서 딸만 넷인데 아버지 없으면 못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노무자로 잡혀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장이 그랬다. 어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여자들만 다섯이 있는데 돈 벌어 밥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하니 일본 사람이 아버지를 풀어줬다. 우리는 그렇게 서러움을 느끼며 살았다. 젊은 사람들은 나라 잃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른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주민 고이레님의 인터뷰 내용 중



방 규격 - 229×397×207cm



G-13 1004마을 사람들



C-2 무랑가든

선미촌의 유리창 속 풍경이 아픈 역사의 끝이고 새로운 시작인 길이 되길 바라며 제작한 작품. 선미촌의 기억이 묻어 있는 이 공간을 주민들의 새로운 창생(創生)의 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되길 바라며 조성하였다.

무랑가든에는 주민들이 만든 예술품과 꽃들로 늘 채워지길 기대한다.



〈무랑가든〉가변 사이즈, 옷, 신발, 의자 및 가구, 식물 등 2020

방 규격 - 304×2351×198cm

C-1 무랑갤러리

노송늬우스개관 기념 주민 예술가 – 문화 숨결展

「노송늬우스박물관」 개관 기념 기획 전시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창작세계를 통해 노송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만든 전시다.

6인의 지역예술가(팀)는 아코디언 연주자, 초상화가, 드라이플라워 예술가, 물왕벌공동체 대표, 압화예술단체, 분재예술단체, 수석가로 구성되어있다.

참여예술가 : 김호윤(아코디언), 윤현기(초상화), 최진영(드라이플라워), 물왕벌공동체(압화), 물왕벌공동체 – 또바기(소나무분재 & 프리저브드), 이순기(수석)



갤러리규격 – 529×921×248cm



물왕벌 공동체
〈압화동〉 3개 – 압화, 한지, 반제품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험대(시험 무대) 지역으로 노송동이 선정이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무엇인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상업화시켜야겠다는 취지로 압화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도시재생센터가 14년도 4월에 해체가 되었다. 압화 작업을 유지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 우리집에서 거기서 1년 동안 작업을 했었다. 나름대로 공동체 자비를 투자해서 많이 만들어 놔다.



물왕벌 공동체 – 또바기
〈분재(소나무), 프리저브드〉 다수의 소품, 프리저브드 플라워, 하바리움 용액(꽃, 식물 보존액)

분재(소나무)
노송 마을을 뜻하는 소나무를 활용해 어르신들을 상징하는 모습을 연출
프리저브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활력적인 느낌을 연출. 마을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지속적인 소득창출, 활동에 보상을 목표를 삼아, 의미있는 노동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마을 어르신과 만들기 시작했다.



윤현기
〈초상화〉 7점 – 종이, 파스텔

사랑하는 손자들의 변천사

아날로그 시절에는 사진을 원판에 직접 수정을 했었다. 지금은 포토샵으로 사진을 보정하지만 아날로그 시절에는 연필로 그려서 수정했었다. 연필로 계속 그리다 보니 채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레 생겼고 그 당시 동아일보에 “윤호”라는 연필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조언을 조금 받았었다. 그 뒤에 취미로 사초 했었는데 사초를 계속 그리다 보니 지금은 파스텔을 이용해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



최진영
〈드라이플라워〉 4개 – 드라이플라워, 조화
1. 오늘 나의 꽃 –랑라
노란색과 보라색, 보색을 사용하여 만든 갈란트
2. 오늘 나의 꽃 – 홍라
분홍색과 보라색, 비슷한 컬러감을 사용해 만든 갈란트
3. 오늘 나의 꽃 – 에리카
다래닝쿨을 엮어 만든 자연적인 리스 틀에 금빛 에레카 소재와 노란 미모사를 이용
4. 오늘 나의 꽃 – 라벤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허브 향이 은은하게 나는 라벤더만을 이용해 심플한 느낌으로 연출



이순기
〈수석〉 수석(11점) – 수석, 목재
1. 바위 위 나무
바위 위에 나무가 우거진 모습의 작품

2. 가지각색 인물

가지각색 얼굴 형상을 띄고 있는 10개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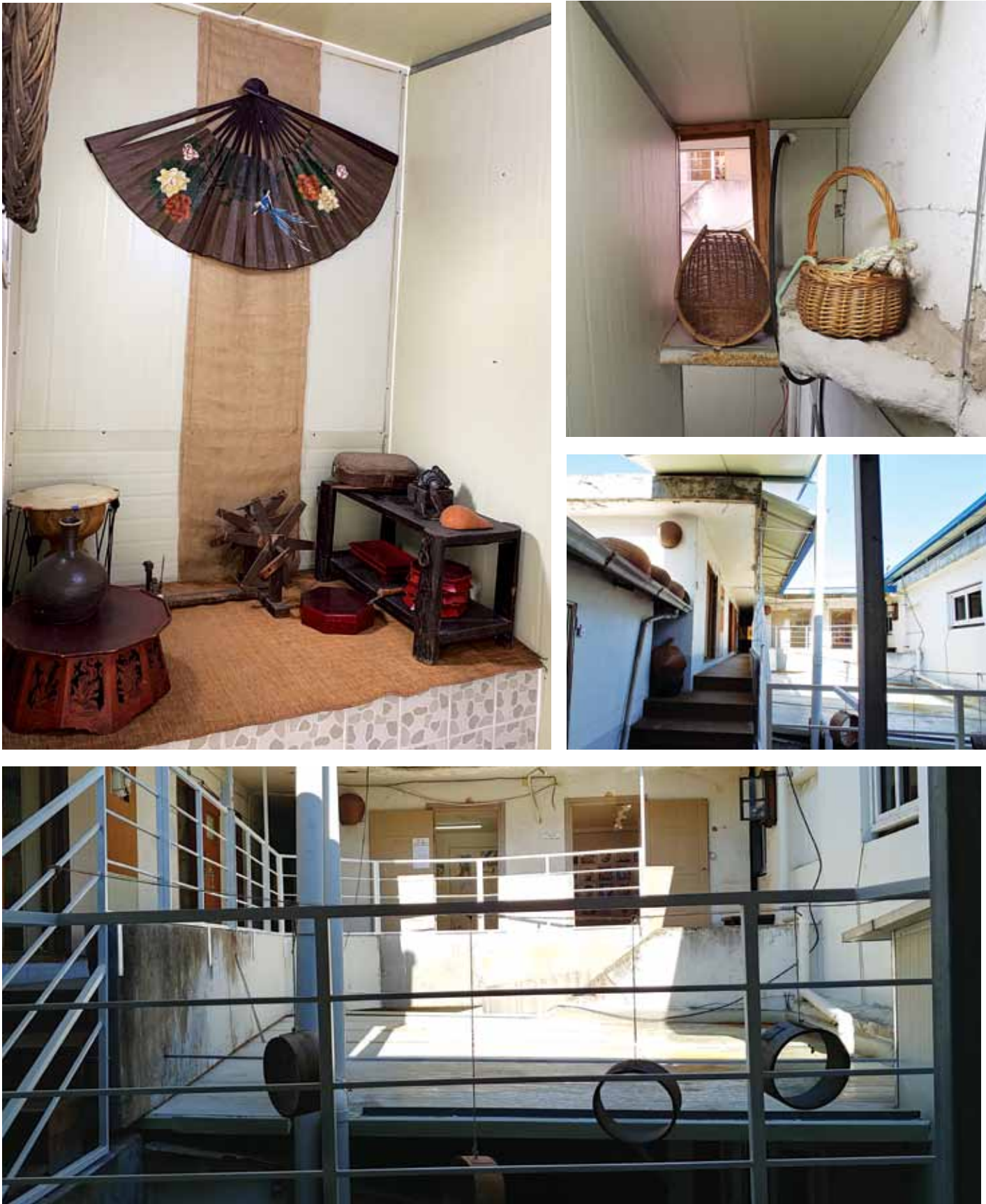
젊었을 때 건축을 했었는데 돌 공장을 겸해서 했었다. 공장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할 돌을 만들고 꽃병도 만들었었다. 꽃병 같은 것을 가게에 진열을 하다보니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꽃병을 사가고 그림하고 바뀌 달라고 해서 바뀌주고 그러다가 골동품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김호윤
〈아코디언 연주〉 연주곡(8곡) – 고향의 봄, 낙화유수, 반달, 비 내리는 호남선, 오빠 생각, 타향살이, 흥도야 울지마라, 황성옛터

원래는 아코디언이 아닌 다른 취미 생활을 했었다. 처음은 키보드를 쳤었고,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풍금을 했었다. 그때 악보를 보고 풍금을 연주해야 해서 악보를 볼 수있었다. 키보드는 악보를 쳐다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쳤는데 아코디언은 쳐다보지 않고 키보드를 눌러야지, 악보는 쳐다봐야지 바람도 날려야지, 연주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취미로 즐겁고재미있게 연주하면서 지내고 있다.

주민들이 기증한 물품 사진



아카이브 사진



하늘에서 본 선미촌 건물 속 노송늬우스박물관

선미촌의 어두운 과거를 바탕으로 더 밝고 따뜻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박물관을 조성하였다.



선미촌 건물 속 노송늬우스박물관

이 건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의 기억을 돌이켜보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건물에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느끼게 되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묻어나는 독특한 건물 구조와 배치에 신선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1층 좁은 세개의 공간 벽면을 없애고 주민갤러리로 조성

노송동 지역주민들의 전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도록 공간을 마련하였다.



1층 창고였던 곳을 무랑가든으로 조성

과거엔 성매매장소였으나, 지금은 노송주민들이 만들고 키운 예술품과 꽃들의 전시공간으로 조성되었다.



2층 노송늬우스박물관 조성

과거 성매매를 위해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던 고립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외부와 소통하고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2층 노송늬우스박물관 13개 방 조성 공사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구분되었던 13개의 방은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잇고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화였다.



사업전 2층 공간의 수 많은 쓰레기 더미들

지금은 단순한 쓰레기일 뿐이지만 과거 누군가에게는 생필품이었을 것이고 손때 묻은 애장품이었을수도 있던 것들임을 기억한다.



바닥 공사, 철재 난간공사, 벽체 시멘트공사로 공간의 재탄생

건물의 기본 구조는 변함이 없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

노송닉우스박물관



2019 - 2020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전주시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도시재생사업단 인디

기획 :  시티아트연구소

발행기관 : 전주시

발행인 : 김승수 전주시장

발행일 : 2020. 02.

만든이들 : 김해곤(총괄감독), 박은희(큐레이터), 김소희 · 이윤서(코디네이터), 성경훈(에디터), 한경진(디자인 지원)

디자인 : 원디자인

도움주신 분들(기관) :

- 사진제공 - 전주문화원(나종우 관장) 전북일보, 전주고등학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주풍남초등학교, 전주대학교박물관, 전주동초등학교, 전주 제일고등학교, 북중 · 전고 동창회
- 영상제공 - 티브로드 전주방송, JTV전주방송
- 노송다큐21 자문 - 전, 전북일보 부장 김관춘, 노송천사마을주민협의회 이동규 고문
- 노송닉우스 편집자문 - 전, 한겨레신문 기자 임종업
- 시인 신석정의 방 자료제공 - 석정문학관(정군수 관장)
- 박물관 조성 협조 - 노송동주민
- 박물관 조성 참여(협업) - 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